

남만항구 목포의 가을, 문화에 반하고 맛에 홀린다

목포 가을 페스티벌 풍성

세계마당페스티벌·항구축제
혁신박람회·목포 문화재야행 등
6~8일 왕년의 목포축제도 첫선
9~10월 주말마다 볼거리 가득

가을엔 '문화도시 목포'라 읽고 '남만항구 목포'라 쓴다. 남만항구 목포의 가을은 색다른 맛이 있어서다. 남만항구를 펼쳐 목포를 읽으면 문화에 반하고 맛에 홀려 누구나 하나의 풍경이 된다. 마치 영화속 주인공처럼.

이야기(스토리)가 있는 목포로 떠나는 가을여행은 운치 있고 멋스럽다. 가족이여도 좋고 연인이면 미학이다. 목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은 보너스다.

원도심 거리를 무대로 난장을 펼치는 목포 세계 마당페스티벌,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목포 문화재 야행, 남만항구 목포의 맛과 멋을 뽐내는 목포 항구축제 등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목포 가을 페스티벌'이라는 통합명칭으로 업그레이드돼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주말마다 목포를 수놓는다.

여기에 건넌 파티와 과거로 이끄는 레트로 북고풍의 '왕년에 목포축제',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 등 흥겨운 잔치마당이 신명을 북돋는다.

가을 페스티벌 일정

1주차 8. 30. ~ 9. 1.	제19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장소 로데오광장
2주차 9. 6. ~ 9. 8.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2019 왕년에 목포축제 장소 근대역사문화거리
3주차 9. 20. ~ 9. 22.	목포문화재 야행 장소 근대역사문화거리
4주차 9. 27. ~ 9. 29.	전국통기타 페스티벌, 버스킹 장소 북항노출공원
5주차 10. 3. ~ 10. 6.	2019 목포항구축제 장소 삼학도
6주차 10. 11. ~ 10. 13.	생활문화동호인한마당 장소 평화광장
7주차 10. 18. ~ 10. 20.	골목이 흥겹다 장소 안희대기념공원
8주차 10. 25. ~ 10. 27.	북항노출축제 장소 북항노출공원

축제장소도 원도심과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삼학도, 북항, 평화광장 등 그야말로 목포 곳곳에서 열린다.

남만항구 목포의 가을제전 서막을 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그동안 마당극, 인형극, 마임, 탈놀이, 국악, 서커스, 콘서트, 로컬스토리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순수민간예술축제로 손꼽혔다.

올해 19회째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해외초청 9개 팀 등 54개 팀이 신명난 판을 벌였다.

개막놀이 '별난 만세'에서는 목포의 근대시민을 재현한 거대한 인형과 현재의 시민



목포 가을 페스티벌의 서막을 연 세계마당페스티벌 개막행사인 '별난만세'에 등장한 거대한 인형들.

이 함께 목포 4.8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유쾌하고 신명난 난장을 선사했다.

특히 '목포 로컬스토리'는 목포의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올해는 고하도 갑화원 터, 조선미곡창고, 양동교회, 대반동 방파제 등 총 4곳에서 열려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스토리와 어우러진 공연으로 목포만의 가을을 연출했다.

이러 '지붕 없는 박물관'이 텐트 없는 박람회' <광주일보 5월 28일자 11면 보도>로 관심이 집중된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6일부터 3일 동안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열린다.

혁신박람회는 지역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역, 창고 등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도시재생과 혁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또 관람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스탬프 릴리, 퀴즈 한마당, 청년밴드 경연, 문화예술 공연, 가상현실(VR)체험, 근대역사 대어관 등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여기에 먹자골목 재현과 7090 오거리 문화, 레코드 다방, 사진관, 포토 존, 보헤미안 등 과거도시문화 '왕년의 목포축제'도 첫 선



세계마당페스티벌 개막행사인 '별난만세' 퍼레이드에 참여한 시민들과 출연진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난 춤사위를 선보였다.

을 보여 '특별한 보충납의 저력'에 나선다.

3주차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2019 목포문화재 야행(夜行)'이 다시 한번 시민과 관광객을 유혹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운동 스토리와 미션수행을 접목한 문화재 인증투어(9개소) '나는(夜) 독립군'을 새롭게 선보이며, 개막공연으로 창작뮤지컬 '사의 잔미'가 주무대인 근대역사관 2관에서 상연된다.

또 각 역사문화재 건물에서 '패션 1897', 목포근대가요 콘서트(목포명창을 만나다), 오페라 콘서트, 독립운동가 스탠딩 인형 만들기 등 40여개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4주차엔 대갈코마니 기법처럼 하늘과 바다에 두 개의 태양이 떠있는 해님이 풍경 앞에서 재즈-오페라-가요 등의 공연을 즐기는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 & 버스킹'이 북항 노출공원에서 펼쳐진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올 가을은 항구도시, 맛의 도시, 슬로시티, 문화도시 등 4가지 컬러를 지닌 '4색의 도시' 목포의 품격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야기가 있는 목포로의 가을여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2·3호 광장 "더 이상 하수구 악취 없다"

시, 덮개 1000여개 교체키로

"상습 침수지역인 목포 2·3호 광장 일대에 더 이상의 하수구 악취는 없다."

목포시가 하수구 악취 고질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도심을 걷다보면 시민들이 하수구 주변을 지나면서 다들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밀폐된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악취 때문이다. 더욱이 악취 방지를 위해 하수구

입구를 장판과 고무 등으로 막아 놓아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 이로 인해서 비가 쏟아지더라도 덮개에 막혀 제대로 된 배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하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막을 수 있을까? 빗물은 통과시키고 냄새는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의 해법을 고민해 온 목포시는 '역류방지용 덮개 교체' 사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2일 '용당1,2동, 연동, 삼학동 도로변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



장 주변 하수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교통시설물 주변 하수도 악취방지용 덮개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상하수도사업단은 먼저 용당 1동 한

일시장 주변 등 3개소의 덮개 384개를 교체한다. 이어서 용당 2동과 연동 목포 MBC 방송국 주변 등 3개소의 덮개 373개와 삼학동 구 청호시장 주변 2개소의 덮개 214개 등 총 971개의 덮개를 역류방지용 덮개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김재진 목포시 하수정비팀장은 "이번 하수도 정비가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면 구간 하수도 악취로 인한 불편감도 없애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양대 실습선 세계로호 선상서 한국 해양정책기술협의회 구축 행사

학술 교류·해양사고 대비

목포해양대는 지난 30일 실습선 세계로호 선상에서 서남권 해양안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해양정책기술협의회' 구축 행사를 가졌다.

전남 서해안 해양분야 안전,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인적, 학술적 교류협력과 해양사고 상시 대비를 위한 해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로 보유한 특수전문기술, 장비 운영능력 및 국내외 법령 지식 등을 상호 교류했다.

민(현대상호중공업, 대한조선)·관(전남도, 해양수산부, 해경)·군(해군 제3함대사령부)·학(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양 네트워크 기구 전체의 역량 강화와 서해안 재난 위기 시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서남권 해양안전 협력 허브 협의체는 향후 '한국해양정책기술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학문적, 학술적 지식 전파를 넘어 해양분야 현장 전문가의 풍부한 현장경험, 기술적 노하우, 사고 전환의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책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유하고 제안하며 토론한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서남권 해양안전 협력 허브 협의체는크고 작은 해양사고와 재난 발생 시 민·관·군이 신속하게 협력 대응하고 모범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강국을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시의회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발의

목포시가 하수구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문차복(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에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



감시책 수립과 추진 ▲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문차복 의원은 "생활악취 등 악취문제는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악취배출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물론 예산투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는 흥분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